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A New Understanding on the Contents in the Block Book of *Samguksagi*

유 부 현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
| 2.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종래의 이해 | 4. 결 언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삼국사기 목판본의 현존본인 ‘성암본’과 ‘중중본’에 대한 종래의 이해에 대해서 ‘성암본’과 ‘조선 태조 3년 개각본’과의 면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고려본인 ‘성암본’은 ‘고려번각본’으로 이해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려재번각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종래 ‘중중본’ 삼국사기 목록(目錄)의 여러 지장(紙張)과 제38권의 제3장이 ‘고려원각본’ 잔판(殘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목록(目錄)의 여러 지장(紙張)은 원각본의 번각본 즉 ‘고려번각본’의 잔판(殘板)에서 인쇄된 것이고, 제38권의 제3장은 ‘고려번각본’을 번각(飜刻)한 ‘조선 태조 3년 개각본’의 목판(木板)에서 인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종래 ‘중중본’의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이 조선 태조 3년 원각본을 번각하여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선 태조 3년에 원각본이 아닌 원각본(原刻本)을 번각하여 중간(重刊)된 번각본(즉 ‘고려번각본’)의 번각으로 판단되었다.

要語: 삼국사기, 목판본, 성암본, 중중본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5년 3월 3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newly examines the previous understanding on ‘Seongambon’ and ‘Jungjongbon’ the block books of *Samguksagi* in existence by carrying out close comparative and contrastive analysis with ‘Sungambon’ and ‘gaegakbon in the third year of Taejo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abridged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ly, ‘Sungambon’, pre-existing Goryeobon, is known as ‘Goryeobeongakbon’, but is considered as ‘Goryeojaebeongakbon’ in the study. Secondly, although it has been thought that several pieces of paper in the list of old ‘Jungjongbon’ of *Samguksagi* and the third paper in the volume 38 were from the remaining wood blocks of ‘Goryeowongakbon’, here it is believed that the former was printed from the left blocks of beongakbon of wongakbon, that is to say ‘Goryeobeongakbon’, and the latter was printed from the block book in the ‘gaegakbon in the third year of Taejo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Goryeowongakbon’ had been engraved outside in. Thirdly,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first and second paper of the volume 38 in the existing ‘Jungjongbon’ and the first paper of the volume 39 came from the wood block which was woodcut inside out and then engraved with wongakbon in the third year of Taejo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study, however, they are considered as the beongak of beongakbon (namely ‘Goryeobeongakbon’) cut outside in and then made again not wongakbon in the third year of Taejo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Samguksagi*, block books, Seongambon, Jungjongbon

1. 서 언

三國史記의 목판본에 대한 연구는 현존본인 ‘誠庵本’(이른바 ‘高麗翻刻本’)인 보물 제722호: 제44~50권 1책)과 ‘中宗本’(이른바 ‘玉山本’)인 보물 제525호: 50권 9책, 이른바 ‘正德本’인 보물 제723호: 50권 9책)을 비롯한 三國史記 ‘中宗本’ 제50권 권말에 附記되어 있는 ‘朝鮮 太祖3年 改刻本’의 金居斗跋文¹⁾과 1512년에 간행된 삼국유사 ‘壬申本’의 李繼福 跋文²⁾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1) “三國史印本之在雞林者歲久而泯，世以寫本行。按廉使沈公孝生得一本，與前府使陳公義貴畧所以刊行，於癸酉七月下牒于府，八月始鋟諸梓。未幾二公見代，余以其年冬十月至府，承觀察使閔相公之命，因繼其志，乃助之施令，工不斷手，至甲戌夏四月告成。嗚呼指揮能事以至於成，惟三公是賴，余何力之有焉！但具事之終始，書于卷末耳。府使嘉善大夫金居斗跋。”

“계림(경주)에 있던 삼국사(三國史記)의 인본은 해가 오래되어 민멸되고 세상에는 사본이 통행되고 있다. 안렴사 심효생이 한 벌을 얻어 전부사 진의귀와 함께 간행할 것을 도모하여 계유년(1393) 7월 부에 첩문이 내려와 8월에 간각을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두 분은 교체되었으며, 내가 그해 겨울 10월에 부에 이르게 되어 관찰사 민개의 명을 받아 그의 뜻에 따라 시행을 도와 작업을 계속하여 갑술년(1394) 여름 4월에 완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오호라 지휘의 능사로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 오직 세 분에게서 힘입은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을 썼으리오! 다만 일의 시말을 갖추어 권말에 적을 따름이다. 부사 가선대부 김거두는 발문을 쓴다.”

2) “吾東方三國本史遺事兩本，他無所刊，而只在本府。歲久尙缺，一行可解僅四五字。余惟士生斯世，歷觀諸史，其於天下治亂興亡與諸異跡，尙欲博識。況居是邦，不知其國事可乎，因欲改刊，廣求完本，閱數載不得焉，其會罕行于世，人未易得見可知。若今不改，則將爲失傳，東方往事，後學竟莫聞知，可嘆也已。幸吾斯文星州牧使權公輾聞余之求，求得完本送余，余喜受，具告監司安相國塘 都事朴候佺，僉曰善。於是分刊列邑，令還藏于本府。噫！物久則必有廢，廢則必有興，興而廢，廢而興，是理之常，知理之常而有時興，以永其傳，亦有望於後來之惠學者云。皇明正德壬申季冬，府尹推誠定難功臣嘉善大夫慶州鎮兵馬節制使全平君李繼福謹跋。”

“우리 동방 삼국의 본사 유사 두 책은 딴 곳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오직 본부에만 있었다. 세월이 오래 되매 완결되어 한 줄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겨우 네다섯 자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건대,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여러 사서를 두루 보고 천하의 치란과 흥망, 그리고 모든 이상한 사적에 대해서도 그 견식을 넓히려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에 이 책을 다시 간행하려 하여 완본을 널리 구하기를 몇 해가 지나도 얻지 못했다. 일찍이 이 책이 세상에 드물게 유포되어 사람들이 쉽게 얻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이것을 다시 간행하지 않는다면 실전되어 동방의 지나간 역사를 후학들이 들어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실로 탄식할 일이다.

결과로서 三國史記의 木板本은 ‘高麗原刻本’(추정), ‘高麗飜刻本’(‘誠庵本’), ‘朝鮮太祖3年 改刻本’(추정), ‘中宗朝 改刻本’(‘中宗本’) 등 네 종류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은 舊板과 新板의 混板인데, 舊板은 ‘高麗原刻本’과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殘板이고, 新板은 ‘高麗原刻本’, ‘高麗飜刻本(誠庵本系)’의 飜刻板과 사본에 의한 筆書補刻板인 것으로 인식하였다.³⁾

이와 같은 三國史記 木板本의 성격에 대한 종래의 이해에 대해서 필자는 대부분 찬동하는 바이다. 하지만 ‘高麗原刻本’과 ‘高麗飜刻本’(‘誠庵本’)에 대한 比定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誠庵本’이 ‘高麗飜刻本’이 아닌 ‘高麗再飜刻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高麗原刻本’과 ‘高麗飜刻本’ 그리고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성격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三國史記 木板本의 성격에 대한 종래의 주장을 정리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高麗原刻本’과 ‘高麗飜刻本’을 중심으로 한 三國史記 木板本의 종류와 성격을 ‘誠庵本’과 ‘朝鮮太祖3年 改刻本’과의 면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2. 三國史記 木板本의 성격에 대한 종래의 이해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에 三國史記의 木板本은 ‘高麗原刻本’

다행히 사문 성주목사 권주가, 내가 이 책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원본을 구해 나에게 보냈다. 나는 이것을 받아 감사 안당과 도사 박전에게 이 소식을 알렸더니 모두 좋다고 했다. 이에 이것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간행시키고 본부에 간직해 두게 했다. 아아! 물건이란 오래 되면 반드시 폐해지고 폐해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일어났다가 폐해지고, 폐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치이다. 이치의 뒤흔힘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전하는 것을 영구하게 해서 또한 후세의 배우는 자들에게 배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황명 정덕 임신 계등에 부운 추성정난공신 가선대부 경주진병마절제사 진평군 이계복이 삼가 발문을 쓴다.”

3) 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599-602.

(추정), ‘高麗飜刻本’(‘誠庵本’), ‘朝鮮 太祖3年 改刻本’(추정), ‘中宗朝 改刻本’(‘中宗本’) 등 네 종류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은 舊板과 新板의 混板인데, 舊板은 ‘高麗原刻本’과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殘板이고, 新板은 ‘高麗原刻本’, ‘高麗飜刻本(誠庵本系)’의 飜刻板과 사본에 의한 筆書補刻板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高麗原刻本’(추정)은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도 구양순체를 해정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며, 주로 左右雙邊이 많고 白口에 魚尾가 없다.⁴⁾

둘째, ‘高麗飜刻本(誠庵本)’은 飜刻替補板이다.⁵⁾

셋째,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판각은 飜刻과 筆書補刻으로 이루어졌다.⁶⁾

넷째,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은 混板으로서⁷⁾ 어느 한 계통의 刻本을 바탕으로 새겨낸 것이 아니라 原刻以後 누차 改刻替補한 混板의 殘存一部와 그것의 대부분을 다시 번각하고 缺落과 磨損을 筆書補刻하여 보충한 것이다.⁸⁾

다섯째,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木板 가운데 舊板은 麗刻板과 朝鮮 太祖3年 改刻板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麗刻板은 극히 적은 수이지만 제38권 제3

4) “原刻의 특징을 지닌 것을 가려 조사하여 보면 …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도 구양순체를 해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 그리고 原刻의 板式에는 주로 左右雙邊이 많고 白口에 魚尾가 없음도 알 수 있게 한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599).

5) “誠庵本은 太祖朝의 改刻이 아닌 그 이전의 高麗飜刻으로서 그 번각규모가 크게 飜刻替補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태조 3년에 개각되었다. 改刻의 규모는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傳存하는 45餘紙의 太祖朝改刻에는 고려의 飜刻板에 들어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原刻 殘板의 飜刻과 缺落 또는 毀損 등으로 인한 筆書補刻이 나타나며, 그것이 中宗改刻에 이르러 대폭적으로 번각된 것이 여기저기에 들어 있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2).

6) “朝鮮太祖3年(1394)의 改刻板 … 中宗朝에서 改刻하여 그 무렵에 찍어낸 책에 판 전체가 많고 글자가 剝缺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既刻의 殘板에서 찍은 紙張들이다. 그 중에서 高麗原刻殘板의 後印으로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면 대략 45餘의 紙張을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太祖 3年 改刻의 殘存留板에서 찍은 것들이다. 그것은 다시 飜刻과 筆書補刻으로 구분된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0).

7) “混板性格을 지닌 中宗朝刊本 …”(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2).

8) 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2.

장⁹⁾과 目錄에서 실례가 확인된다. 이들의 상태는 板이 닳고 글자의 剝缺이 심하다. 또한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은 해정한 구양순체이다.¹⁰⁾ 다음으로 朝鮮 太祖3年 改刻板은 45餘의 紙張인데 飜刻과 筆書補刻으로 구분된다. 번각은 高麗 飜刻板에 섞여 있던 原刻殘板에서 찍어낸 것의 번각인데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이 해당된다.¹¹⁾ 필서보각은 저본의 결함으로 인해 寫本에 의거 새로 써서 새긴 것인데 40餘의 紙張으로서 제44권 제5장, 제45권 제14장, 제50권 제1장¹²⁾이 해당된다.¹³⁾ 이들 朝鮮 太祖3年 改刻板의 상태는 판 전체가 닳고 글자가 剝缺되어 있다.¹⁴⁾

-
- 9) “... 제38권의 제3장만은 당시까지 잔존된 原刻板에서의 印出인 듯하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0).
- 10) “극히 적은 수이지만, 卷首의 目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麗刻板에서 찍어 낸 것을 들 수 있다. ... 그 麗刻板은 原刻인 것으로 여겨진다. 原刻의 특징을 지닌 것을 가려 조사하여 보면 판이 닳고 글자의 剝缺이 심하여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본시 판각을 잘하였기 때문에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도 구양순체를 해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599).
- 11) “朝鮮太祖3年(1394)의 改刻板 ... 飜刻은 紙張數가 약간에 지나지 않는다. ... 傳存의 것은 字樣과 판각의 특징으로 미루어 高麗 飜刻板에 섞여 있던 原刻殘板에서 찍어낸 것의 飜刻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예로서 제38권의 제1·2장이라든가, 제39권의 제1장을 들 수 있다. 제38권의 제3장만은 당시까지 잔존된 原刻板에서의 印出인 듯하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0).
- 12) “朝鮮太祖3年(1394)의 改刻板 ... 제50권 제1장의 경우 誠庵本에 있어서는 권수제 다음에 찬자의 官銜이 장황하게 새겨지고 있으나, 태조 3년 改刻에 있어서는 그것을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도 성암본에 있어서는 板匡의 세로가 크고 白口 無魚尾이며 板心下段에 黑圓點이 새겨지고 있으나, 태조 3년 개각에 있어서는 판광의 세로가 작고 黑口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여준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0).
- 13) “朝鮮太祖3年(1394)의 改刻板 ... 筆書에 의한 補刻은 40餘의 紙張이 全卷에 걸쳐 混入되고 있다. 이 補刻은 沈孝生이 구한 한 벌의 底本에 缺落 또는 不足이 생겼거나 심한 磨損으로 글자의 판독이 어려워 통행되고 있는 寫本에 의거 새로 써서 새겨 보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제44권 제5장, 제45권 제14장 및 제50권 제1장이 바로 그것이며 모두 筆書補刻이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0).
- 14) “朝鮮太祖3年(1394)의 改刻板 ... 中宗朝에서 改刻하여 그 무렵에 찍어낸 책에 판 전체가 닳고 글자가 剝缺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既刻의 殘板에서 찍은 紙張들이다. 그 중에서 高麗 原刻殘板의 後印으로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면 대략 45餘의 紙張을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太祖 3년 改刻의 殘存留板에서 찍은 것들이다. 그것은 다시 飜刻과 筆書補刻으로 구분된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0).

여섯째,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木板 가운데 新板은 中宗朝 改刻板으로서 飜刻과 筆書補刻으로 구분된다. 먼저 번각은 改刻替補된 것을 다시 새긴 것으로서 改刻의 태반을 차지하는 飜刻과 적지 않게 혼입되어 있는 誠庵本系의 飜刻¹⁵⁾으로 구분된다. 제45권 제1장, 제46권 제9장, 제48권 제1장이 誠庵本系의 飜刻에 해당된다. 이들 中宗朝 飜刻板의 상태는 인쇄가 뚜렷하며, 자획이 고르지 않고 字體가 不整하며, 판각의 정교도가 훨씬 떨어진다.¹⁶⁾ 다음으로 필서보각은 저본의 결함으로 인해 寫本에 의거 새로 써서 새긴 것인데, 이들 中宗朝 筆書補刻板은 字體가 各樣各筆이고 체재가 가지런하지 못하며 誤字가 빈출하고 있다.¹⁷⁾

三國史記 木板本과 中宗朝 改刻本の 木板에 대한 종래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15) “中宗朝의 改刻板 … 그 중에는 誠庵本系의 飜刻이 적지 않게 여기저기에 혼입되고 있으며 뒤 부분의 권차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 誠庵本에서 誤刻한 것을 그대로 새긴 것이 빈출하고, 심지어는 마멸로 자획의 일부가 이즈러진 글자를 그대로 새긴 것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 제45권 제1장에는 卷首題 다음에 撰者職銜의 새김이 생략된 것도 서로 꼭 같다. 그리고 板心上에 특이하게 표시한 것 이를테면 제46권 제6(필자의 생각에 ‘6’은 ‘9’의 오류로 생각됨)장의 上段에 검은 細線으로 둘러진 黑口라든가, 제48권 제1장의 중간에 二重으로 둘러진 黑圓點까지 그대로 새기고 있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1).
- 16) “中宗朝의 改刻板 … 그 改刻은 번각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全卷을 통해 조사하여 보면 그 간에 改刻替補된 것이 잡다하게 다시 새겨진 것들이다. … 새로 새겨 인쇄가 뚜렷하면서도 자획이 고르지 않고 字體가 不整하여 판각의 정교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은 모두 中宗朝의 번각임을 능히 가름해 낼 수 있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1).
- 17) “中宗朝의 改刻板 … 筆書補刻은 이 경우도 改刻의 저본으로 삼기 위해 구한 책에 缺落 또는 不足이 생겼거나 심한 마손으로 글자의 판독이 어려워 새로 써서 보충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 필서보각은 여러 畵이 분담하여 새긴 것이기 때문에 各樣各筆이고 체재가 가지런하지 못하며 誤字가 빈출하고 있다.”(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01).

<표 1> 三國史記 板本에 대한 종래의 이해

板本	木板의 종류	板刻	舊板의 성격 및 新板의 저본	板本の 성격
高麗 原刻本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도 구양순체를 해정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며, 주로 左右 雙邊이 많고 白口에 魚尾가 없음
高麗 讎刻本 (誠庵本)	舊板		高麗原刻本の 殘板	讎刻替補板
	新板	讎刻	高麗原刻本	
朝鮮 太祖3年 改刻本	新板	讎刻	高麗讎刻板에 섞여 있던 原刻殘板에서 찍어낸 것	
		筆書補刻	寫本	
中宗朝 改刻本 (中宗本)	舊板 A		高麗原刻本の 殘板	混板으로서 中宗朝刊本은 어느 한 계통의 刻本을 바탕으로 새겨낸 것이 아니라 原刻以後 누차 改刻替補한 混板의 殘存一部와 그것의 대부분을 다시 번각하고 缺落과 磨損을 筆書補刻하여 보충한 것임
	舊板 B		朝鮮太祖3年 改刻本の 殘板	
	新板	讎刻	高麗原刻本	
		筆書補刻	高麗讎刻本(誠庵本系) 寫本	

<표 2> 三國史記 ‘中宗朝 改刻本’의 木板에 대한 종래의 이해

	구성	판각 성격		수량	紙張의 實例	상태
中宗朝 改刻本의 經板	舊板	麗刻板	麗刻板(原刻板)에서 찍어낸 것	극히 적은 수	目錄에서 볼 수 있음. 제38권 제3장	① 板이 닳고 글자의 刊缺이 심함 ②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은 해정한 구양순체임
		朝鮮 太祖3年 改刻板	讎刻	高麗讎刻板에 섞여 있던 原刻殘板에서 찍어낸 것의 讎刻	45餘의 紙張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
	筆書補刻		저본의 결함으로 인해 寫本에 의거 새로 써서 새긴 것	40餘의 紙張 제44권 제5장 제45권 제14장 제50권 제1장		
新板	中宗朝 改刻板	讎刻	改刻替補된 것을 다시 새긴 것	대반을 차지함	제45권 제1장 제46권 제9장 제48권 제1장	① 인쇄가 뚜렷함 ② 자획이 고르지 않고 字體가 不整함 ③ 판각의 정교도가 훨씬 떨어짐
		筆書補刻	저본의 결함으로 인해 寫本에 의거 새로 써서 새긴 것	적지 않게混入됨	2장 ¹⁸⁾	① 各樣各筆임 ② 체제가 가지런하지 못함 ③ 誤字가 빈출함

3.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한 종래의 이해에 대해서 필자는 대부분 찬동하지만 ‘高麗原刻本’과 ‘高麗飜刻本’(‘誠庵本’) 등에 대한 比定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三國史記 木板本の 성격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誠庵本’을 ‘高麗飜刻本’으로 比定한 종래의 견해에 대해서 ‘誠庵本’(제 44~50권)과 ‘中宗朝 改刻本’(‘中宗本’)과 대조하여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誠庵本’의 제44권~제50권과 ‘中宗本’의 제44권~제50권을 대조 분석한 바, ‘誠庵本’과 ‘中宗本’에는 동일한 판본 계통의 紙張과 다른 계통의 지장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먼저 ‘中宗本’에서 ‘誠庵本’과 다른 계통의 紙張은 다음과 같다.

제44권(총15장)의 제1, 5장.

제45권(총15장)의 제9, 10, 11, 12, 13, 14, 15장.

제46권(총9장)의 제1, 2, 3, 4, 5, 6, 장.

제47권(총15장)의 제10장.

제48권(총9장)의 제4, 5, 6, 7, 8, 9장.

제49권(총5장)의 제1, 2, 3, 4, 5장.

제50권(총20장)의 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18장.

이 가운데 ‘中宗本’ 제44권의 제5장, 제45권의 제14장, 제48권의 제6장, 제50권의 제1, 2장 등은 鮮初(朝鮮 太祖 3年)에 筆寫改刻된 舊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⁹⁾ 그리고 제44권의 제1장, 제46권의 제1, 3, 4, 5장, 제47권의 제10장, 제50권의 제18장 등은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飜刻인 것으로 추정된다.²⁰⁾ 끝으

18) 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삼성출판사, 1991), 639.

19) 이들 지장에는 완결된 곳 많고, 글자의 자형이 三國史記 판본의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다.

20) 필자는 ‘中宗本’ 제44권의 제1장, 제46권의 제1, 3, 4, 5장, 제47권의 제10장, 제50권의 제18장이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飜刻인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中宗本’의 이들 紙張이 ‘誠庵本’과 글자의 모양, 배열 등이 다르기 때문에 ‘中宗本’의 이들 紙張이 ‘朝鮮太祖3

로 제45권의 제9, 10, 11, 12, 13, 15장, 제46권의 제2, 6장, 제48권의 제4, 5, 7, 8, 9장, 제49권의 제1~5장, 제50권의 제3~12장 등은 中宗朝에 筆寫板刻된 것으로 판단된다.²¹⁾

다음으로 ‘中宗本’에서 ‘誠庵本’과 동일 계통의 紙張은 다음과 같다.

제44권(총15장)의 제2~4, 6~15장.

제45권(총15장)의 제1~8장.

제46권(총9장)의 제7~9장.

제47권(총15장)의 제1~9, 11~15장.

제48권(총9장)의 제1~3장.

제50권(총20장)의 제13~17, 19, 20장.

‘中宗本’과 ‘誠庵本’의 이 紙張들은 글자 모양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中宗本’이 정교한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글자의 자형, 배열이 동일하다. 한편 이들 ‘中宗本’과 ‘誠庵本’의 紙張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板式과 魚尾의 모양은 상이하다. 이것으로 보아 ‘中宗本’과 ‘誠庵本’은 동일한 목판에서 인출된 同板本은 아니며, 동일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각각 번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제45권의 제1, 3, 4장, 제46권의 9장, 제47권의 2, 7, 9장, 제48권의 제1장, 2장 등은 물론 글자의 정교함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자의 자형, 배열이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魚尾를 비롯한 版心에 새겨져 있는 특이한 모양의 圖案까지 동일하다(<그림 1~9>²²⁾ 참조).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中宗本’과 ‘誠庵本’의 어미와 관심의 모양 그리고 ‘中宗本’의 판각성격은 ‘中宗本’과 ‘誠庵本’의 판본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年 改刻本’의 鑿刻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中宗本’의 이들 紙張이 高麗本의 번각이고, 이들 紙張에 해당되는 ‘誠庵本’이 筆寫改刻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21) 이들 지장에는 완결된 곳이 없고 글자의 모양이 분명하며, 글자의 자형이 三國史記 판본의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다.

22) 이들 三國史記의 도판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사진을 이용한 것이다.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誠庵本’의 제44권~제50권과 ‘中宗本’의 제44권~제50권을 대조 분석하여 이들의 魚尾와 版心の 상태, ‘中宗本’의 판각성격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여 表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誠庵本’과 ‘中宗本’의 魚尾 및 ‘中宗本’의 판각성격

卷次 張次	제44권			卷次 張次	제45권		
	魚尾		中宗本の 판각성격		魚尾		中宗本の 판각성격
	誠庵本	中宗本			誠庵本	中宗本	
1	?	없음	鮮本皴刻	1	白圈	白圈	麗本皴刻 ²³⁾
2	?	없음	麗本皴刻	2	下3線黑	上黑 下1線黑	麗本皴刻
3	?	없음	麗本皴刻	3	上黑	上黑	麗本皴刻
4	?	없음	麗本皴刻	4	下3線黑	下3線黑	麗本皴刻
5	黑	없음	舊板(鮮初筆 寫刻板)	5	下3線黑	下黑	麗本皴刻
6	없음	없음	麗本皴刻	6	下3線黑	下黑	麗本皴刻
7	?	없음	麗本皴刻	7	上黑	上下黑	麗本皴刻
8	?	없음	麗本皴刻	8	上黑	上下黑	麗本皴刻
9	黑	없음	麗本皴刻	9	上黑	上下1線大黑	筆寫板刻
10	?	없음	麗本皴刻	10	下3線黑	上下1線大黑	筆寫板刻
11	黑	없음	麗本皴刻	11	上黑	上下1線大黑	筆寫板刻
12	?	없음	麗本皴刻	12	下3線黑	上下1線大黑	筆寫板刻
13	?	없음	麗本皴刻	13	上黑	없음	筆寫板刻
14	없음 ?	없음 白圈	麗本皴刻	14	下3線黑	없음	舊板(鮮初 筆寫刻板)
15	?	없음	麗本皴刻	15	上黑	없음	筆寫板刻

23) ‘성암본’, ‘중종본’ 모두에 撰者名은 빠져 있다.

<표 3-2> ‘誠庵本’과 ‘中宗本’의 魚尾 및 ‘中宗本’의 판각성격

卷次 張次	제46권			卷次 張次	제47권		
	魚尾		中宗本の 판각성격		魚尾		中宗本の 판각성격
	誠庵本	中宗本			誠庵本	中宗本	
1	長白圈	없음	鮮本飜刻	1	없음	없음	麗本飜刻 ²⁴⁾
2	長白圈	上下黑	筆寫板刻	2	上黑	上黑	麗本飜刻
3	長白圈	上下1線大黑	鮮本飜刻	3	?	白圈	麗本飜刻
4	長白圈	上下大黑	鮮本飜刻	4	下3線黑	下1線黑	麗本飜刻
5	長白圈	上下1線大黑	鮮本飜刻	5	長白圈	없음	麗本飜刻
6	長白圈	上下黑	筆寫板刻	6	上黑	上黑	麗本飜刻
7	없음	없음	麗本飜刻	7	下3線黑	下3線黑	麗本飜刻
8	없음	없음	麗本飜刻	8	?	없음	麗本飜刻
9	長白圈 上1線黑	長白圈 上1線黑	麗本飜刻	9	上雙黑	上雙黑	麗本飜刻
				10	上黑	없음	鮮本飜刻
				11	?	없음	麗本飜刻
				12	下3線黑	下2線黑	麗本飜刻
				13	長白圈 上黑	上1線黑	麗本飜刻
				14	없음	없음	麗本飜刻
				15	?	없음	麗本飜刻

24) ‘中宗本’의 撰者名만은 中宗朝에 變改될 때 새로 필사하여 刊改된 것으로 추정된다. ‘誠庵本’의 撰者名은 글자가 크고, 金富軾의 성과 이름이 떨어져 있는데 變改된 것으로 판단된다. ‘中宗本’에도 ‘誠庵本’과 동일한 형태가 있다.

<표 3-3> ‘誠庵本’과 ‘中宗本’의 魚尾 및 ‘中宗本’의 판각성격

卷次 張次	제48권			卷次 張次	제50권		
	魚尾		中宗本の 판각성격		魚尾		中宗本の 판각성격
	誠庵本	中宗本			誠庵本	中宗本	
1	版心中 二重圈點	版心中 二重圈點	麗本皴刻 ²⁵⁾	1	?	上下2線黑	舊板(鮮初筆 寫刻板) ²⁶⁾
2	下2線黑	下2線黑	麗本皴刻	2	없음	없음	舊板(鮮初筆 寫刻板)
3	下黑 ²⁷⁾	下1線黑	麗本皴刻	3	上1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4	下2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4	下向1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²⁸⁾
5	長白圈	上下黑	筆寫板刻	5	上1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6	?	없음	舊板(鮮初筆 寫刻板)	6	없음	上下黑	筆寫板刻
7	上1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7	上下黑	上下黑	筆寫板刻
8	上下黑	上下黑	筆寫板刻	8	上黑	上下黑	筆寫板刻
9	上下黑	下黑	筆寫板刻	9	下2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10	上黑	上下黑	筆寫板刻
				11	上1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12	下2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13	下2線黑	下2線黑	麗本皴刻
				14	下2線黑	없음	麗本皴刻
卷次 張次	제49권			卷次 張次	제50권		
	誠庵本	中宗本	中宗本の 板刻 성격		誠庵本	中宗本	中宗本の 판각성격
1	없음	上下黑	筆寫板刻	15	없음	없음	麗本皴刻
2	下2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16	없음	없음	麗本皴刻
3	上黑	上下黑	筆寫板刻	17	?	없음	麗本皴刻
4	上1線黑下黑 ²⁹⁾	上下黑	筆寫板刻	18	?	없음	鮮本皴刻
5	下1線黑	上下黑	筆寫板刻 ³⁰⁾	19	上1線黑	上1線黑	麗本皴刻
				20	上1線黑	上1線黑	麗本皴刻

25) ‘中宗本’의 撰者名만은 中宗朝에 번각될 때 새로 필사하여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글자가 매우 작고 金富賦의 성과 이름 사이에 공간이 없다).

26) 撰者名이 ‘성암본’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중종본’에는 빠져 있다.

27) ‘성암본’은 좌우쌍변이고, ‘중종본’은 사주단변이다.

28) 제7행 제3자인 ‘武’가 ‘성암본’에는 피휘결획되어 있고, ‘중종본’에는 완전한 글자로 되어 있다.

29) ‘성암본’은 좌우쌍변이고, ‘중종본’은 사주단변이다.

30) 제3행 末字 및 제4행 제8자인 ‘武’가 ‘성암본’에는 피휘결획되어 있고, ‘중종본’에는 완전한 글자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표 3> “誠庵本과 中宗本の 魚尾 및 中宗本の 판각성격”에서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만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4>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과 같다.

<표 4>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

卷次 / 張次	版心 / 魚尾		誠庵本과 中宗本の 판각성격	참고
	誠庵本	中宗本		
45 / 1	版心上 白圈	版心上 白圈	麗本皴刻 ³¹⁾	<그림 1>
45 / 3	上黑	上黑	麗本皴刻	<그림 2>
45 / 4	下3線黑	下3線黑	麗本皴刻	<그림 3>
46 / 9	版心上 長白圈 上1線黑	版心上 長白圈 上1線黑	麗本皴刻	<그림 4>
47 / 2	上黑	上黑	麗本皴刻	<그림 5>
47 / 7	下3線黑	下3線黑	麗本皴刻	<그림 6>
47 / 9	上雙黑(?)	上雙黑	麗本皴刻	<그림 7>
48 / 1	版心中 二重圈點	版心中 二重圈點	麗本皴刻 ³²⁾	<그림 8>
48 / 2	下2線黑	下2線黑	麗本皴刻	<그림 9>

이제부터는 <표 3> “誠庵本과 ‘中宗本’의 魚尾 및 ‘中宗本’의 판각성격” 및 <표 4>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과 <그림 1~9>를 통해 ‘誠庵本’의 판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에 대해서 글자 모양 즉 판각된 글자의 모양의 관점에서 보면, ‘誠庵本’과 ‘中宗本’이 모두 高麗本(推定) 번각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誠庵本’은 ‘中宗本’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매우 투박한 상태이다. 이것은 ‘中宗本’이 고려본의 일종인 ‘誠庵本’의 번각본이 아니고 ‘성암본’보다 더 정교한 고려본(이를테면 ‘성암본’의 母本이나

31) ‘성암본’, ‘중종본’ 모두에 撰者名은 빠져 있다.

32) ‘中宗本’의 撰者名만은 中宗朝에 번각될 때 새로 필사하여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글자가 매우 작고 金富軾의 성과 이름 사이에 공간이 없다).

祖本 혹은 原刻本)의 번각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에 대해서 魚尾와 版心 모양의 관점에서 보면, ‘誠庵本’과 ‘中宗本’이 版心の 동일한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魚尾와 특이한 圖案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두 판본이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두 본이 母本과 子本の 관계일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中宗本’이 ‘誠庵本’의 母本일 가능성은 없다. 단지 ‘誠庵本’이 ‘中宗本’의 母本일 가능성만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본의 판각된 글자의 모양에서 보면, ‘中宗本’은 고려본의 일종인 ‘誠庵本’의 번각본이 아니고 ‘성암본’보다 더 정교한 고려본(이른다면 ‘성암본’의 母本이나 祖本 혹은 原刻本)의 번각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誠庵本’이 ‘中宗本’의 母本일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魚尾와 版心, 판각성격이 동일한 ‘誠庵本’과 ‘中宗本’의 紙張에 있어서 이들 紙張에 해당되는 ‘中宗本’의 저본은 어떤 고려본인가? 아마도 ‘誠庵本’보다 판각에 있어 한 층위 앞선 고려본으로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誠庵本’보다 판각에 있어 한 층위 앞선 고려본은 또 어떤 고려본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誠庵本’과 ‘中宗本’ 版心の 동일한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魚尾와 특이한 圖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들은 두 본의 母本(혹은 祖本)이 된 고려본에서 처음 형성된 것이 분명하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 고려본은 고려 原刻本 아니면 원각본의 重刊本 두 판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될 것은 ‘誠庵本’과 ‘中宗本’ 版心の 동일한 위치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魚尾와 특이한 圖案이다. 三國史記 ‘中宗本’ 50권 전체와 ‘誠庵本’ 7권(제44~50권)을 통해 原刻本の 版心の 모양을 추정해 보면, 魚尾는 無魚尾(어미가 없음)이고, 특이한 圖案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誠庵本’과 ‘中宗本’ 版心の 동일한 위치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魚尾(上黑, 下3線黑, 上1線黑, 下3線黑, 上雙黑, 下2線黑)와 특이한 圖案(白圈, 長白圈, 二重圈點)은 판본학적으로 볼 때 고려 原刻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각본이 重刊될 때 변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궁극적으로 ‘誠庵本’과 ‘中宗本’의 母本은

고려 原刻本이 아니라 重刊本에 해당되는 고려 飜刻本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誠庵本’은 고려 번각본의 번각본인 ‘高麗 再飜刻本’인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종래 ‘誠庵本’을 ‘高麗 飜刻本’으로 比定한 종래의 이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高麗原刻本’에 대해서, “高麗原刻本’(추정)은 자획이 대체로 굵고 고르며 字樣도 구양순체를 해정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며, 주로 左右雙邊이 많고 白口에 魚尾가 없다.”고 比定한 종래의 견해³³⁾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中宗本’이 간행될 때 ‘高麗原刻本’의 殘板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실례로서 ‘中宗本’의 目錄(구체적인 紙張은 언급이 없음)과 제38권의 제3장을 들었다.³⁴⁾ 그러나 <그림 10>에 보이듯이 이들이, 아무리 350여년이 지난 殘板에서 인출된 후쇄본이라 할지라도, 原刻本의 木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기에 글자의 모양이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中宗本’ 目錄 대부분의 紙張은 原刻本의 번각본 목판에서 인출된 것이고, ‘中宗本’ 제38권의 제3장은 ‘高麗 飜刻本’을 飜刻한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木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中宗本’이 간행될 때 ‘高麗原刻本’의 殘板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三國史記의 原刻이 慶州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된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 동방 삼국의 本史 遺事 두 책은 딴 곳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오직 本府(慶州)에만 있었다.”는 1512년 壬申年에 작성되어 壬申本 三國遺事 권말에 부기되어 있는 慶州鎭兵馬節制使 李繼福의 三國遺事 跋文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계복의 발문에 근거해서 三國史記의 原刻이 경주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필자는 종래 原刻本의 木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주장된 紙張들의 글자 모양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紙張들이 번각본 목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종래에는 ‘高麗原刻本’의 邊欄은 주로 左右雙邊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였

33) 각주 4), 11) 참조.

34) 각주 10), 11) 참조.

는데,³⁵⁾ 이것은 ‘高麗原刻本’의 잔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주장된 目錄의 여러 紙張 가운데 邊欄이 左右單邊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까닭에 불가피하게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에 ‘高麗原刻本’의 잔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주장된 目錄의 여러 紙張들이 정말로 ‘高麗原刻本’의 잔판에서 인출된 것이라면 이들의 변란은 한 종류로 통일된 형식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高麗原刻本’의 잔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주장된 目錄의 여러 紙張에서 변란의 종류가 통일되지 못하고 左右雙邊과 左右單邊이 혼재해 있는 현상은 이들 紙張이 ‘高麗原刻本’이 아닌 ‘高麗翻刻本’의 잔판에서 인출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原刻에는 변란의 형식이 左右雙邊이었지만 번각되어 重刊되면서 일부는 左右單邊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주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三國史記 판각은 原刻이 아니라 原刻本을 번각한 重刊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朝鮮 太祖3年 改刻板은 45餘의 紙張인데 翻刻과 筆書補刻으로 구분된다. 번각은 高麗翻刻板에 섞여 있던 原刻殘板에서 찍어낸 것의 번각인데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이 해당된다. 필서보각은 저본의 결함으로 인해 寫本에 의거 새로 써서 새긴 것인데 40餘의 紙張으로서 제44권 제5장, 제45권 제14장, 제50권 제1장이 해당된다.”는 종래의 견해³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中宗本’ 가운데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은 舊板에서 인출된 것인데, 그 舊板은 高麗翻刻板에 섞여 있던 原刻殘板에서 찍어낸 것의 번각으로 판단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주장은 다시 말해서 ‘中宗本’의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이 朝鮮 太祖 3年 原刻本을 번각하여 판각된 木板에서 인출된 紙張으로 추정된 것인데, <그림 11>에 보이듯이 이들 紙張에 나타나는 글자의 모양은 판각의 정교함이 原刻本의 번각으로 보기에는 매우 투박한 느낌이다. 필자는 ‘中宗本’의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은 原刻本이 아닌 原刻本을 번각하여 重刊된 翻刻本의 번각으로

35) 각주 4) 참조.

36) 각주 6) 참조.

판단한다.

다음으로 ‘中宗本’의 제44권 제5장, 제45권 제14장, 제50권 제1장(<그림 12> 참조)을 비롯한 40餘의 紙張이 朝鮮 太祖 3年 筆寫板刻하여 판각된 木板에서 인출된 紙張으로 판단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견해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단지 종래에는 이에 해당되는 紙張이 제44권 제5장, 제45권 제14장, 제50권 제1장을 포함한 40餘의 紙張이라고만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朝鮮 太祖 3年 筆寫板刻하여 판각된 木板에서 인출된 ‘中宗本’의 紙張은 총 61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三國史記 50권 전체의 장수는 825장임).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의 제4, 7, 10장. 제2권의 제2, 14장. 제3권의 제1, 5장. 제4권의 제9, 10장. 제5권의 제6, 7, 10, 13, 18장. 제6권의 제1, 4, 6장. 제7권의 제18장. 제8권의 제2, 4, 15, 19장. 제9권의 제4, 12, 13장. 제10권의 제5장. 제11권의 제9장. 제13권의 제10, 11장. 제14권의 제1~3장. 제15권의 제8장. 제16권의 제4장. 제17권의 제12장. 제18권의 제4~10장. 제22권의 제10장. 제24권의 제7장. 제25권의 제8장. 제32권의 제6장. 제36권의 제3, 7장. 제37권의 제6장. 제38권의 제1~3장. 제39권의 제1장. 제40권의 제11, 19장. 제41권의 제7장. 제44권의 제5장. 제45권의 제14장. 제48권의 제6장. 제50권의 제1, 2장.

넷째,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木板 가운데 新板은 中宗朝 改刻板으로서 飜刻과 筆書補刻으로 구분된다. 먼저 번각은 改刻替補된 것을 다시 새긴 것으로서 改刻의 태반을 차지하는 飜刻과 적지 않게 혼입되어 있는 誠庵本系의 飜刻으로 구분된다. 제45권 제1장, 제46권 제9장, 제48권 제1장이 誠庵本系의 飜刻에 해당된다.”는 주장³⁷⁾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木板은 飜刻이 改刻의 태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번각이 原刻本의 번각인지, 아니면 ‘高麗飜刻本’의 번각인지 또는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번각인지, 그 飜刻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改刻替補된 것을 다시 새긴 것”이란 내용을 보면, 原刻本을

37) 각주 16), 15) 참조.

변각했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해당 紙張도 “改刻의 태반을 차지한다.” 고만 언급하였다.

필자의 생각에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改刻은 ‘중종본’의 판각된 상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변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단 그 변각의 저본이 된 판본이 ‘고려원각본’, ‘고려번각본’, ‘朝鮮太祖3年 改刻本’ 가운데 어느 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변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中宗本’의 紙張 가운데 확실히 ‘高麗翻刻本’을 변각하여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총 98장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52장은 제1~43권에서 조사된 것으로서 ‘中宗本’ 가운데 본 연구에서 ‘高麗再翻刻本’으로 판단된 ‘誠庵本’에 보이는 특이한 魚尾와 版心 모양과 연관성이 있는 紙張을 選別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8장은 제44~50권에서 ‘誠庵本’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들 紙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9> 참조).

제3권의 제4장. 제4권의 제18장. 제6권의 제12장. 제12권의 제6, 7장. 제13권의 제8장. 제15권의 제1, 15장. 제17권의 제1, 5, 8, 9장. 제19권의 제1장. 제20권의 제1장. 제22권의 제4장. 제24권의 제1, 2, 5, 8, 10장. 제26권의 제2장. 제29권의 제25, 32, 34, 39, 41, 43, 48장. 제30권의 제1, 2, 3, 5, 6, 8, 10, 11, 19, 46, 49장. 제31권의 제8, 9, 33, 37, 54장. 제34권의 제4, 12장. 제35권의 제8, 10장. 제37권의 제14, 17, 18장. 제44권의 제2~4, 6~15장. 제45권의 제1~8장. 제46권의 제7~9장. 제47권의 제1~8장, 제11~15장. 제48권의 제1~3장. 제50권의 제13~17장, 제19, 20장.

또한 본 연구에서는 ‘中宗本’에서 ‘朝鮮太祖3年 改刻本’ 중에서 筆寫板刻되어 인출된 것을 中宗朝에 변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총 13장의 紙張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6장(제6권 제1, 2장. 제9권 제3, 6장. 제10권 제4, 19장)은 ‘中宗本’ 가운데 글자의 모양이 전형적인 三國史記 판본의 자형이 아니면서 조금 투박하게 판각된 紙張을 選別한 것이다(<그림 13> 참조). 그리고 나머지 7장(제44권 제1장. 제46권 제1, 3~5장. 제47권 제10장. 제50권 제18장)은 제44~50권에서 ‘誠庵本’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그림 14> 참조).

한편 ‘中宗本’에서 筆寫板刻되어 인출된 것은 총 8장(제31권 제1장, 제39권 제9장, 제40권 제1, 9장, 제45권 제15장, 제46권 제2, 6장, 제50권 제3장)이 조사되었다(<그림 16> 참조).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는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木板에는 誠庵本系の 飜刻이 적지 않게 혼입되어 있는데, 제45권 제1장, 제46권 제9장, 제48권 제1장 (<그림 1, 4, 8> 참조)이 誠庵本系の 飜刻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에서는 “誠庵本系”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誠庵本系”의 판본이 ‘성암본’과 同本인지 ‘성암본’의 저본이 된 판본인지, ‘성암본’을 저본으로 판각된 판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45권 제1장, 제46권 제9장, 제48권 제1장에 해당되는 紙張의 ‘성암본’과 ‘중종본’을 대조해 보면 ‘중종본’의 것이 글자의 모양과 판각의 솜씨에 있어 ‘성암본’보다 훨씬 정교하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誠庵本系”의 판본은 ‘성암본’의 底本이 된 판본(즉 母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誠庵本系”의 판본은 ‘고려번각본’이고, ‘성암본’은 ‘高麗再飜刻本’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高麗飜刻本’에서 번각이 아닌 필사되어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것을 中宗朝에 번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총 3장(제15권 제5, 6, 9장)이 조사되었다(<그림 15> 참조). 이 판단은 이들 ‘중종본’ 紙張의 글자 모양이 깔끔한 筆書體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고, 이들 紙張의 版心 상단에는 圈點이 새겨져 있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木板에 대해 새롭게 고찰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 5> “中宗朝 改刻本’ 木板의 성격”으로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표 5> ‘中宗朝 改刻本’ 木板의 성격

木板의 종류	木板의 성격	해당 紙張(총 825장)	참고 도판
舊板 A	‘高麗齣刻本’의 木板	14장 ³⁸⁾	7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舊板 B-1	朝鮮太祖3年 ‘高麗齣刻本’을 齣刻한 木板	4장 (제38권 제1~3장. 제39권 제1장)	
舊板 B-2	朝鮮太祖3年 筆寫板刻한 木板	61장 ³⁹⁾	
新板	齣刻된 목판	624장 ⁴⁰⁾	
	‘高麗齣刻本’가운데 번각된 것을 번각한 목판	98장 ⁴¹⁾	〈그림 1~9〉
	‘高麗齣刻本’가운데 筆寫板刻된 것을 번각한 목판	3장 (제15권 제5, 6, 9장)	746 〈그림 15〉
	‘朝鮮太祖3年 改刻本’ 가운데 筆寫板刻된 것을 번각한 목판	13장 ⁴²⁾	〈그림 13〉 〈그림 14〉
	筆寫板刻된 木板	8장 ⁴³⁾	〈그림 16〉

38) 목록의 제1~8, 11~16장. 이외의 제9, 10장은 補板으로 추정된다.

39) 제1권의 제4, 7, 10장. 제2권의 제2, 14장. 제3권의 제1, 5장. 제4권의 제9, 10장. 제5권의 제6, 7, 10, 13, 18장. 제6권의 제1, 4, 6장. 제7권의 제18장. 제8권의 제2, 4, 15, 19장. 제9권의 제4, 12, 13장. 제10권의 제5장. 제11권의 제9장. 제13권의 제10, 11장. 제14권의 제1~3장. 제15권의 제8장. 제16권의 제4장. 제17권의 제12장. 제18권의 제4~10장. 제22권의 제10장. 제24권의 제7장. 제25권의 제8장. 제32권의 제6장. 제36권의 제3, 7장. 제37권의 제6장. 제38권의 제1~3장. 제39권의 제1장. 제40권의 제11, 19장. 제41권의 제7장. 제44권의 제5장. 제45권의 제14장. 제48권의 제6장. 제50권의 제1, 2장.

40) 필자의 생각에 ‘中宗朝 改刻本’(‘中宗本’)의 改刻은 ‘중종본’의 판각된 상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번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단 그 번각의 저본이 된 판본이 ‘高麗原刻本’, ‘高麗齣刻本’, ‘朝鮮太祖3年 改刻本’ 가운데 어느 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41) 제3권의 제4장. 제4권의 제18장. 제6권의 제12장. 제12권의 제6, 7장. 제13권의 제8장. 제15권의 제1, 15장. 제17권의 제1, 5, 8, 9장. 제19권의 제1장. 제20권의 제1장. 제22권의 제4장. 제24권의 제1, 2, 5, 8, 10장. 제26권의 제2장. 제29권의 제25, 32, 34, 39, 41, 43, 48장. 제30권의 제1, 2, 3, 5, 6, 8, 10, 11, 19, 46, 49장. 제31권의 제8, 9, 33, 37, 54장. 제34권의 제4, 12장. 제35권의 제8, 10장. 제37권의 제14, 17, 18장. 제44권의 제2~4, 6~15장. 제45권의 제1~8장. 제46권의 제7~9장. 제47권의 제1~8장, 제11~15장. 제48권의 제1~3장. 제50권의 제13~17장, 제19, 20장.

여기에 제시된 100장의 紙張은 ‘中宗本’의 紙張 가운데 특이한 魚尾와 版心 모양에 의거하여 ‘高麗齣刻本’을 번각하여 판각된 목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4. 결 언

본 연구는 三國史記 목판본의 현존본인 ‘誠庵本’(이른바 ‘高麗翻刻本’인 보물 제722호: 제44~50권 1책)과 ‘中宗本’(이른바 ‘玉山本’인 보물 제525호: 50권 9책, 이른바 ‘正德本’인 보물 제723호: 50권 9책)에 대한 종래의 이해에 대해서 ‘誠庵本’과 ‘朝鮮太祖3年 改刻本’과의 면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고려본인 ‘誠庵本’은 ‘高麗翻刻本’으로 比定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高麗再翻刻本’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종래 ‘중종본’ 三國史記 目錄의 여러 紙張과 제38권의 제3장이 ‘高麗原刻本’ 殘板에서 인출된 紙張으로 인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目錄의 여러 紙張은 原刻本の 翻刻本 즉 ‘高麗翻刻本’의 殘板에서 인출된 것이고, 제38권의 제3장은 ‘高麗翻刻本’을 翻刻한 ‘朝鮮太祖3年 改刻本’의 木板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종래 ‘中宗本’의 제38권 제1장, 제38권 제2장, 제39권 제1장이 朝鮮太祖3年 原刻本을 번각하여 판각된 木板에서 인출된 紙張으로 추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朝鮮太祖3년에 原刻本이 아닌 原刻本을 번각하여 重刊된 翻刻本(즉 ‘고려번각본’)의 번각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中宗本’의 木板 가운데 제45권 제1장, 제46권 제9장, 제48권 제1장이 “誠庵本系”의 翻刻인 것으로 주장만 하였고 “誠庵本系”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誠庵本系”가 ‘高麗翻刻本’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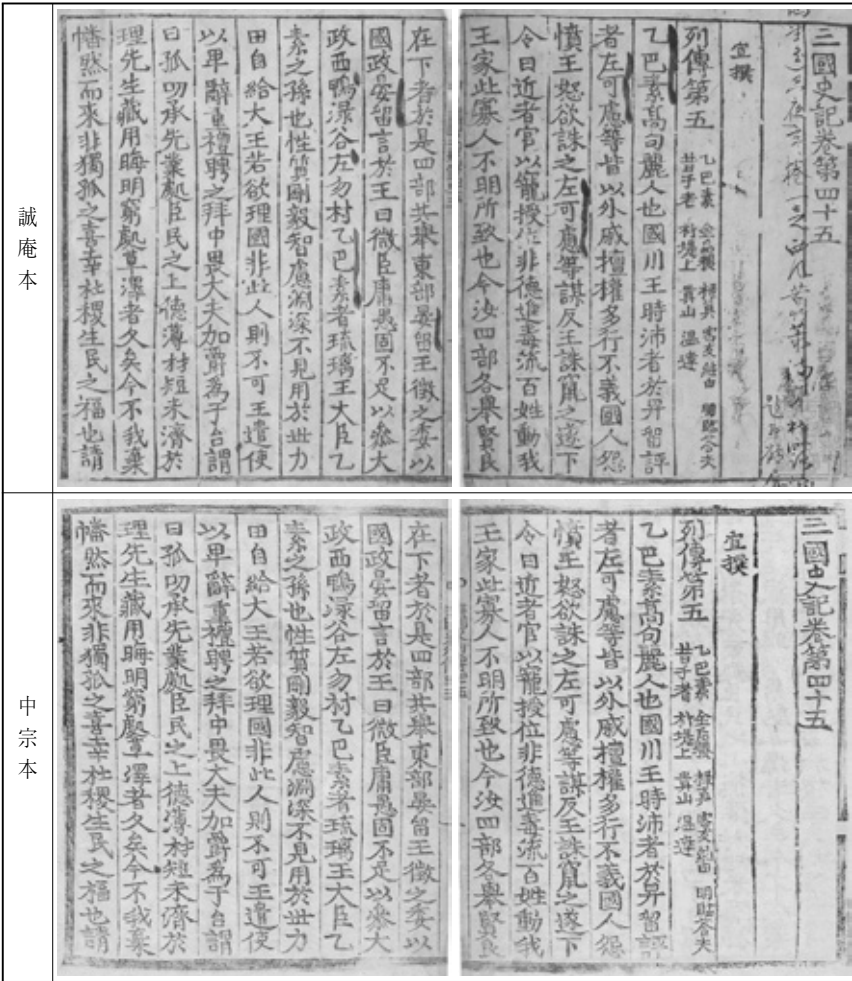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中宗朝에 ‘高麗翻刻本’가운데 筆寫板刻된 紙張을 번각하여 인출된 ‘중종본’의 紙張 3장을 찾아내어 제시하였다.

42) 제6권 제1, 2장. 제9권 제3, 6장. 제10권 제4, 19장. 제44권 제1장. 제46권 제1, 3~5장. 제47권 제10장. 제50권 제18장.

43) 제31권 제1장. 제39권 제9장. 제40권 제1, 9장. 제45권 제15장. 제46권 제2, 6장. 제50권 제3장.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三國史記 ‘誠庵本’(이른바 ‘高麗翻刻本’인 보물 제722호: 제44~50권 1책).
三國史記 ‘中宗本’(이른바 ‘玉山本’인 보물 제525호: 50권 9책).
三國史記 ‘中宗本’(이른바 ‘正德本’인 보물 제723호: 50권 9책).
柳富鉉. “『三國史記』 鮮初本の 刊行地에 대한 新考察.” 『書誌學研究』 제8집(書誌學會, 1992. 12). 35-42.
柳富鉉. “『三國史記』校勘에 關한 一考.” 『書誌學研究』 14집(書誌學會, 1997. 12). 75-98.
柳富鉉. “三國史記(권44~50) 文字異同에 대한 一考察.” 『신라문화』 12집(신라문화연구소, 1995. 12).
千惠鳳. “새로 발견된 古板本三國史記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제15집(1982).
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 삼성출판사, 1991.



<그림 1> 삼국사기 제45권 제1장

<p>誠庵本</p>	<p>內則傷心外則亡國不可不省也陛下其念之 王不從又切諫不見聽後右稷疾病將死謂其 三子曰吾為人臣不能匡救君惡恐大王遊娛 不已以至於亡敗是吾所憂也雖死必思有以 悟君須瘞吾骨於大王遊畋之路側子等皆從 之他日王出行羊路有違聲若曰真去王顧問 聲何從來從者告去彼右稷伊淦之墓也遂陳 右稷臨死之言大王增然流涕曰夫子忠諫死 而不忘其愛我也深矣若終不改其何顏於幽 明之間耶遂終身不復獵</p> <p>稷真姓與字未詳父秀奉一吉汝祿具二十三 歲始仕屢經內外官至憲德大王十年戊戌為 執事侍郎十四年國王無嗣子以母弟秀宗為 儲戴八月他宮時患寒角子為上中等坐政事 室注擬內外官追公感疾召國醫診脈曰病在 心臟須服龍齒湯遂啗服三七日杜門不見賓 客於是稷真造而請見門者拒焉稷真曰下官 非不知相公移疾講客須獻一言於左右以開</p>	<p>內則傷心外則亡國不可不省也陛下其念之 王不從又切諫不見聽後右稷疾病將死謂其 三子曰吾為人臣不能匡救君惡恐大王遊娛 不已以至於亡敗是吾所憂也雖死必思有以 悟君須瘞吾骨於大王遊畋之路側子等皆從 之他日王出行羊路有違聲若曰真去王顧問 聲何從來從者告去彼右稷伊淦之墓也遂陳 右稷臨死之言大王增然流涕曰夫子忠諫死 而不忘其愛我也深矣若終不改其何顏於幽 明之間耶遂終身不復獵</p> <p>稷真姓與字未詳父秀奉一吉汝祿具二十三 歲始仕屢經內外官至憲德大王三十年戊戌為 執事侍郎十四年國王無嗣子以母弟秀宗為 儲戴八月他宮時患寒角子為上中等坐政事 室注擬內外官追公感疾召國醫診脈曰病在 心臟須服龍齒湯遂啗服三七日杜門不見賓 客於是稷真造而請見門者拒焉稷真曰下官 非不知相公移疾講客須獻一言於左右以開</p>
<p>中宗本</p>	<p>內則傷心外則亡國不可不省也陛下其念之 王不從又切諫不見聽後右稷疾病將死謂其 三子曰吾為人臣不能匡救君惡恐大王遊娛 不已以至於亡敗是吾所憂也雖死必思有以 悟君須瘞吾骨於大王遊畋之路側子等皆從 之他日王出行羊路有違聲若曰真去王顧問 聲何從來從者告去彼右稷伊淦之墓也遂陳 右稷臨死之言大王增然流涕曰夫子忠諫死 而不忘其愛我也深矣若終不改其何顏於幽 明之間耶遂終身不復獵</p> <p>稷真姓與字未詳父秀奉一吉汝祿具二十三 歲始仕屢經內外官至憲德大王三十年戊戌為 執事侍郎十四年國王無嗣子以母弟秀宗為 儲戴八月他宮時患寒角子為上中等坐政事 室注擬內外官追公感疾召國醫診脈曰病在 心臟須服龍齒湯遂啗服三七日杜門不見賓 客於是稷真造而請見門者拒焉稷真曰下官 非不知相公移疾講客須獻一言於左右以開</p>	<p>內則傷心外則亡國不可不省也陛下其念之 王不從又切諫不見聽後右稷疾病將死謂其 三子曰吾為人臣不能匡救君惡恐大王遊娛 不已以至於亡敗是吾所憂也雖死必思有以 悟君須瘞吾骨於大王遊畋之路側子等皆從 之他日王出行羊路有違聲若曰真去王顧問 聲何從來從者告去彼右稷伊淦之墓也遂陳 右稷臨死之言大王增然流涕曰夫子忠諫死 而不忘其愛我也深矣若終不改其何顏於幽 明之間耶遂終身不復獵</p> <p>稷真姓與字未詳父秀奉一吉汝祿具二十三 歲始仕屢經內外官至憲德大王三十年戊戌為 執事侍郎十四年國王無嗣子以母弟秀宗為 儲戴八月他宮時患寒角子為上中等坐政事 室注擬內外官追公感疾召國醫診脈曰病在 心臟須服龍齒湯遂啗服三七日杜門不見賓 客於是稷真造而請見門者拒焉稷真曰下官 非不知相公移疾講客須獻一言於左右以開</p>

<그림 2> 삼국사기 제45권 제3장



<그림 3> 삼국사기 제45권 제4장



<그림 4> 삼국사기 제46권 제9장

<p>誠庵本</p>	<p>白城郡出兵往抄百濟邊邑百濟出精女急擊 之我士卒亂退沈那獨立拔劍怒目大呼斬殺 數十餘人賊懼不敢當遂引兵而走百濟人指 沈那曰新羅飛將因相謂曰沈那尚生莫近白 城素那雄姿有父風百濟滅後漢州都督都儒 公請大王遷素那於阿達城伴撫此鄙上元二 年乙亥春阿達城太守級凌漢宣教民以其日 齊出種麻不得違令鞞鞞諺者詔之歸告其酋 長至其日百姓皆出城在田鞞鞞師稗入城</p>	<p>山州都督邊品與師襲根岑城取之百濟聞之 舉兵來奚論等逆之兵既相交奚論謂諸將曰 昔吾父殞身於此我今亦與百濟人戰於此是 我死日也遂以短兵赴敵殺數人而死王聞之 為流涕贈卹其家甚厚時人無不哀悼焉作長 歌吊之 素那<small>或古</small>白城郡蛇山人也其父沈那<small>或古</small>政 力過人身輕且捷蛇山境與百濟相錯故玄朔 寇擊無虛月沈那每出戰所向無堅陣仁平中</p>
<p>中宗本</p>	<p>白城郡出兵往抄百濟邊邑百濟出精女急擊 之我士卒亂退沈那獨立拔劍怒目大呼斬殺 數十餘人賊懼不敢當遂引兵而走百濟人指 沈那曰新羅飛將因相謂曰沈那尚生莫近白 城素那雄姿有父風百濟滅後漢州都督都儒 公請大王遷素那於阿達城伴撫此鄙上元二 年乙亥春阿達城太守級凌漢宣教民以其日 齊出種麻不得違令鞞鞞諺者詔之歸告其酋 長至其日百姓皆出城在田鞞鞞師稗入城</p>	<p>山州都督邊品與師襲根岑城取之百濟聞之 舉兵來奚論等逆之兵既相交奚論謂諸將曰 昔吾父殞身於此我今亦與百濟人戰於此是 我死日也遂以短兵赴敵殺數人而死王聞之 為流涕贈卹其家甚厚時人無不哀悼焉作長 歌吊之 素那<small>或古</small>白城郡蛇山人也其父沈那<small>或古</small>政 力過人身輕且捷蛇山境與百濟相錯故玄朔 寇擊無虛月沈那每出戰所向無堅陣仁平中</p>

<그림 5> 삼국사기 제47권 제2장

<p>誠庵本</p>	<p>屈曰唯乃入賊陣力戰死令胤生長世家以名節自許神文大王時高句麗殘賊悉伏以報德城叛王命討之以令胤為黃矜普幢步騎將行謂人曰吾此行也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及見悉伏出報卒城南七里結陣以待之或告曰今此凶黨營如鷲鳥巢上魚戲中里萬死以爭一日之命耳語曰窮寇勿迫宜左次以待疲極而擊之可不血刃而擒也諸將然其言誓退獨令胤不肯之而欲戰從者告曰今諸將豈盡偷生之人惜死之輩哉而以向者之言為然者將俟其隙而得其便者也而子獨直前其不可乎令胤曰臨陣無勇禮經之所識有進無退士卒之常分也丈夫臨事自交何必從眾遂赴敵陣格鬪而死王聞之悽愴流涕曰無是父無是子其義烈可嘉者也追贈對賞尤厚</p> <p>官昌<small>官欽</small>新羅將軍品且之子儀表都雅少而為花郎善與人交年十六能騎馬彎弓大盜其為之太宗大王至唐顯慶五年庚申王出師與</p>	<p>屈曰唯乃入賊陣力戰死令胤生長世家以名節自許神文大王時高句麗殘賊悉伏以報德城叛王命討之以令胤為黃矜普幢步騎將行謂人曰吾此行也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及見悉伏出報卒城南七里結陣以待之或告曰今此凶黨營如鷲鳥巢上魚戲中里萬死以爭一日之命耳語曰窮寇勿迫宜左次以待疲極而擊之可不血刃而擒也諸將然其言誓退獨令胤不肯之而欲戰從者告曰今諸將豈</p>
<p>中宗本</p>	<p>盡偷生之人惜死之輩哉而以向者之言為然者將俟其隙而得其便者也而子獨直前其不可乎令胤曰臨陣無勇禮經之所識有進無退士卒之常分也丈夫臨事自交何必從眾遂赴敵陣格鬪而死王聞之悽愴流涕曰無是父無是子其義烈可嘉者也追贈對賞尤厚</p> <p>官昌<small>官欽</small>新羅將軍品且之子儀表都雅少而為花郎善與人交年十六能騎馬彎弓大盜其為之太宗大王至唐顯慶五年庚申王出師與</p>	<p>屈曰唯乃入賊陣力戰死令胤生長世家以名節自許神文大王時高句麗殘賊悉伏以報德城叛王命討之以令胤為黃矜普幢步騎將行謂人曰吾此行也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及見悉伏出報卒城南七里結陣以待之或告曰今此凶黨營如鷲鳥巢上魚戲中里萬死以爭一日之命耳語曰窮寇勿迫宜左次以待疲極而擊之可不血刃而擒也諸將然其言誓退獨令胤不肯之而欲戰從者告曰今諸將豈</p>

<그림 6> 삼국사기 제47권 제7장

<p>誠庵本</p>	<p>王憤百濟與高句麗捷邊謀伐之及出師以敵 彈為郎幢大監於是宿於家風梳雨沐與士 卒同甘苦抵百濟之地管陽山下欲進攻助川 城百濟人乘夜疾驅黎明縹壘而入我軍驚駭 顛沛不能定賊因亂急擊飛矢雨集敵彈橫馬 握槳待敵大舍詮知說日今賊起暗中咫尺不 相辨公雖死人無識者况公新羅之貴骨大王 之半子若死賊入手則百濟所誇詫而吾人之 所深羞者矣歎彈曰大丈夫既以身許國人知 之與不知一也豈敢求名乎強立不動從者握 響勸還敵彈拔劍揮之與賊鬪殺數人而死於 是大監穢破少監狄得相與戰死步騎幢主 用邪聞敵彈死日被骨貴而勢榮人所愛惜而 猶守節以死况實用那生而無益死而無損乎 遂赴敵殺三數人而死大王聞之傷恟贈敵彈 織破位一吉浪實用那狄得位大奈麻時人聞 之作陽山歌以傷之 論曰羅人患無以知人欲使報豪聖遊以觀其</p>	<p>王憤百濟與高句麗捷邊謀伐之及出師以敵 彈為郎幢大監於是宿於家風梳雨沐與士 卒同甘苦抵百濟之地管陽山下欲進攻助川 城百濟人乘夜疾驅黎明縹壘而入我軍驚駭 顛沛不能定賊因亂急擊飛矢雨集敵彈橫馬 握槳待敵大舍詮知說日今賊起暗中咫尺不 相辨公雖死人無識者况公新羅之貴骨大王 之半子若死賊入手則百濟所誇詫而吾人之 所深羞者矣歎彈曰大丈夫既以身許國人知 之與不知一也豈敢求名乎強立不動從者握 響勸還敵彈拔劍揮之與賊鬪殺數人而死於 是大監穢破少監狄得相與戰死步騎幢主 用邪聞敵彈死日被骨貴而勢榮人所愛惜而 猶守節以死况實用那生而無益死而無損乎 遂赴敵殺三數人而死大王聞之傷恟贈敵彈 織破位一吉浪實用那狄得位大奈麻時人聞 之作陽山歌以傷之 論曰羅人患無以知人欲使報豪聖遊以觀其</p>
<p>中宗本</p>	<p>王憤百濟與高句麗捷邊謀伐之及出師以敵 彈為郎幢大監於是宿於家風梳雨沐與士 卒同甘苦抵百濟之地管陽山下欲進攻助川 城百濟人乘夜疾驅黎明縹壘而入我軍驚駭 顛沛不能定賊因亂急擊飛矢雨集敵彈橫馬 握槳待敵大舍詮知說日今賊起暗中咫尺不 相辨公雖死人無識者况公新羅之貴骨大王 之半子若死賊入手則百濟所誇詫而吾人之 所深羞者矣歎彈曰大丈夫既以身許國人知 之與不知一也豈敢求名乎強立不動從者握 響勸還敵彈拔劍揮之與賊鬪殺數人而死於 是大監穢破少監狄得相與戰死步騎幢主 用邪聞敵彈死日被骨貴而勢榮人所愛惜而 猶守節以死况實用那生而無益死而無損乎 遂赴敵殺三數人而死大王聞之傷恟贈敵彈 織破位一吉浪實用那狄得位大奈麻時人聞 之作陽山歌以傷之 論曰羅人患無以知人欲使報豪聖遊以觀其</p>	<p>王憤百濟與高句麗捷邊謀伐之及出師以敵 彈為郎幢大監於是宿於家風梳雨沐與士 卒同甘苦抵百濟之地管陽山下欲進攻助川 城百濟人乘夜疾驅黎明縹壘而入我軍驚駭 顛沛不能定賊因亂急擊飛矢雨集敵彈橫馬 握槳待敵大舍詮知說日今賊起暗中咫尺不 相辨公雖死人無識者况公新羅之貴骨大王 之半子若死賊入手則百濟所誇詫而吾人之 所深羞者矣歎彈曰大丈夫既以身許國人知 之與不知一也豈敢求名乎強立不動從者握 響勸還敵彈拔劍揮之與賊鬪殺數人而死於 是大監穢破少監狄得相與戰死步騎幢主 用邪聞敵彈死日被骨貴而勢榮人所愛惜而 猶守節以死况實用那生而無益死而無損乎 遂赴敵殺三數人而死大王聞之傷恟贈敵彈 織破位一吉浪實用那狄得位大奈麻時人聞 之作陽山歌以傷之 論曰羅人患無以知人欲使報豪聖遊以觀其</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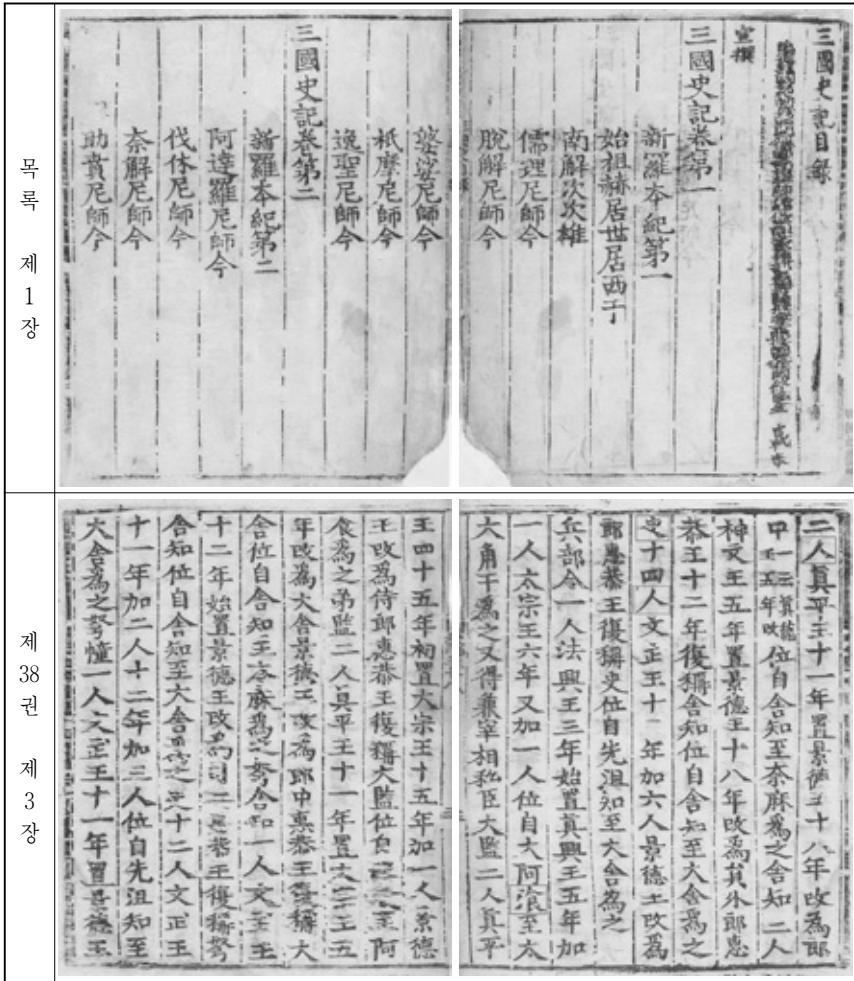
<그림 7> 삼국사기 제47권 제9장



<그림 8> 삼국사기 제48권 제1장

誠庵本	<p> 意樂餌以是為孝不聞毀支體者也苟不傷我 則聖賢先衆而為之是不幸因而且死則毀傷 滅絕之罪有歸矣安可旌其門以表異之雖然 委卷之陋非有學術禮義之資能忘身以及其 親出於誠心亦足稱者故列焉則若何德者亦 可書者乎 實弓大舍純德之子也性剛直不可屈以非義 真王時為上舍人時下舍人珍堤其為人使 倭為王所嬖雖與實弓同察臨事互相是非實 </p>	<p> 方守正不苟且珍堤嫉恨屢讒於王曰實弓無 智多膽氣急於喜怒雖大王之言非其意則 憤不能已若不懲艾其將為亂蓋黜退之待其 屈服而後用之非晚也王然之謫官冷林或謂 實弓曰君自祖考以忠誠公村聞於時今為倭 臣之讒毀遠官於竹嶺之外荒僻之地不亦痛 乎何不直言自辨實弓答曰昔屈原孤直為楚 摺檻李斯盡忠為秦極刑故知倭臣或主忠士 被斥古亦然也何足悲乎遂不言而往作長歌 </p>
中宗本	<p> 意樂餌以是為孝未聞毀支體者也苟不傷我 則聖賢先衆而為之是不幸因而且死則毀傷 滅絕之罪有歸矣安可旌其門以表異之雖然 委卷之陋非有學術禮義之資能忘身以及其 親出於誠心亦足稱者故列焉則若何德者亦 可書者乎 實弓大舍純德之子也性剛直不可屈以非義 真王時為上舍人時下舍人珍堤其為人使 倭為王所嬖雖與實弓同察臨事互相是非實 </p>	<p> 方守正不苟且珍堤嫉恨屢讒於王曰實弓無 智多膽氣急於喜怒雖大王之言非其意則 憤不能已若不懲艾其將為亂蓋黜退之待其 屈服而後用之非晚也王然之謫官冷林或謂 實弓曰君自祖考以忠誠公村聞於時今為倭 臣之讒毀遠官於竹嶺之外荒僻之地不亦痛 乎何不直言自辨實弓答曰昔屈原孤直為楚 摺檻李斯盡忠為秦極刑故知倭臣或主忠士 被斥古亦然也何足悲乎遂不言而往作長歌 </p>

<그림 9> 삼국사기 제48권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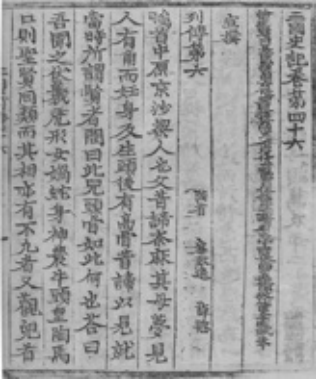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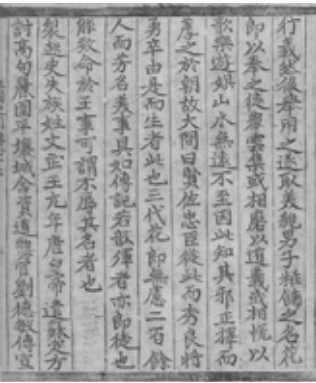
<그림 10> 中宗本 三國史記 目錄 제1장, 제38권 제3장

	誠庵本	中宗本
제 44 권 제 5 장	<p>其與王在位十一年大嘗元百濟拔高句麗 道隆城高句麗陷百濟金嶺城王率南國兵攻 命異斯夫出北擊之取二城增築留中士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嶺城不克而還異斯夫 遣擊之大勝</p> <p>金仁問字仁壽太宗大王第二子也幼而能學 多讀儒家之書兼涉莊老浮屠之說又善律書 射御鄉樂行禮純誠識量宏弘時人推許求徵 二年仁問年二十三歲受主命 大府宿將高</p>	<p>其與王在位十一年大嘗元百濟拔高句麗 道隆城高句麗陷百濟金嶺城王率南國兵攻 命異斯夫出北擊之取二城增築留中士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嶺城不克而還異斯夫 遣擊之大勝</p> <p>金仁問字仁壽太宗大王第二子也幼而就學 多讀儒家之書兼涉莊老浮屠之說又善律書 射御鄉樂行禮純誠識量宏弘時人推許求徵 二年仁問年二十三歲受主命 大府宿將高</p>
제 45 권 제 14 장	<p>不忍賊取榆皮於山林久而未還公主出行 至山下見遠道負榆皮而來公主與之言懷溫 溫情然曰非幼女子竹簾行與非人也狐鬼 心勿迫我也遂行不顧公主獨歸宿紫門下明 朝與人與母子情懷之溫運依違未嘗六日 吾恐至阻不從發與人吾恐至阻不從發 人居公主朝日古人言一尺果猶可有一尺布 猶可離離而為同心何必憂哉後以其手乃 與金仁問相見也如中 國風物異用其具初</p>	<p>不忍賊取榆皮於山林久而未還公主出行 至山下見遠道負榆皮而來公主與之言懷溫 溫情然曰非幼女子竹簾行與非人也狐鬼 心勿迫我也遂行不顧公主獨歸宿紫門下明 朝與人與母子情懷之溫運依違未嘗六日 吾恐至阻不從發與人吾恐至阻不從發 人居公主朝日古人言一尺果猶可有一尺布 猶可離離而為同心何必憂哉後以其手乃 與金仁問相見也如中 國風物異用其具初</p>
제 50 권 제 1 장	<p>三國史記卷第五十</p> <p>列傳第十 高麗 取金</p> <p>高麗新羅人姓金氏考第四十七憲安王桓靖 母憲安至顯御矣其地名或云四十八景文王 所廢之子以五月五日生於外家其時屋上有 青光若史如上帝天日中來曰此以重午月 生也而有齒光冠其衣於於木不封於屋家</p>	<p>三國史記卷第五十</p> <p>宣統 高麗 取金</p> <p>高麗新羅人姓金氏考第四十七憲安王桓靖 母憲安至顯御矣其姓名或云四十八景文王 所廢之子以五月五日生於外家其時屋上有 青光若長江上層天日官奏曰此兒以重午日 生也而有齒且光冠其衣於木不利於國家</p>

<그림 12> 제 44 권 제 5 장, 제 45 권 제 14 장, 제 50 권 제 1 장

		中宗本	
제 6 권	제 1 장	<p>三國史記卷第六</p> <p>宣統</p> <p>新羅本紀第六 文武王上</p> <p>文武王立佛法敬太宗王之元子母金氏文明王后蘇判舒玄之孝女慶信之妹也其妹夢登西元山頂坐狹篋拂圖內覺與赤子夢夢戲曰子願買元此夢因與錫祖為君後數日慶信與春秋公親鞠園踐落春秋末紀慶信曰</p> <p>近高往繼因與俱往宅置德從容變計線采縫其時有改不進其衣遊前經繼漢經服尤艷昭人春秋見而悅之乃請婚成禮因有娠生男是謂法敬妃慈儀王后沒珍寶善品之女也法敬來至特聰明多智昭永徽初如唐高宗故以大府神太宗元年以改珍陰為女部令尋封為太子顯慶五年太宗與唐時蘇定方早有清法敬從之有人功至是即位</p> <p>元年六月入唐宿衛仁問儒教等上造皇宗已</p>	<p>景德王立諱賢慈孝成王同母弟孝成無子立篤善為太子故得嗣位妃伊訖最貞之女也元年冬十月日本國使至不納</p> <p>二年春三月主力公宅年一歲三韓唐太宗遣贊善大夫魏曜來示祭仍備王王為新羅王襲先王官爵制曰故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智督魏州諸軍事兼持節寧海軍使新羅王金承慶弟賢慈孝慈儀仁率心常禮大賢風教備理尤明中夏親儀衣冠善其地海塞而遣使</p>
제 9 권	제 3 장	<p>準雲呂而道朝代為流臣累勳忠節頃者兄承土宇設而絕嗣弟賢慈及抑惟常經是用復康優以冊命宜用舊號伴水蔭長之名仍加殊禮</p> <p>歲錫漢官之號可罷元新羅王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智督魏州諸軍事兼充持節寧海軍使并賜御注孝經一初夏四月約舒第罪全最惡女為王地秋八月地震冬十二月遣王弟入唐習正授在清道平直直史文賜綠花銀帶放還</p>	<p>身曾入唐為學生不亦可用耶王從之論曰惟學焉然後開道惟開道然後知事之本末故學而後仕者其發事也先本而末自正譬如舉一網萬目從而皆正不學而後仕者不知本末故學而後仕者其發事也先本而末自正</p> <p>指欲以爲利或苛察以相高雖欲利國安民而反害之是故學記之言終於務本而昔亦言不學無術而莊事惟煩則執事七月一言可爲萬世之積善也</p>
제 10 권	제 4 장	<p>六年春正月以宗基為侍中增築碧霞宮堤嶺全州等七州人興役熊川州連赤為三月以一言</p> <p>宋伯魚使北國大旱夏四月大日辰星聚于東井五月出粟賑濟山熊川二月饑民</p> <p>七年春三月王太子卒諡曰忠思伊達福恭叛伏謀熊川州向省大舍婁至三月又十月京都婁三天人向凍死侍中宗基兄大阿除俊為侍中十一月京都地震內省侍印令言為三皇阿除</p>	

<그림 13> 제6권 제1장, 제9권 제3장, 제10권 제4장

	誠庵本	中宗本
제 44 권 제 1 장	 <p>三國史記卷第四十四 宣稱 列傳第四 乙文又德未詳其世系實沈魏有分數款解 文防剛皇中煬帝下詔征高句麗於是左胡奇 大將軍宇文述出扶餘道右胡衛大將軍于仲 文出樂浪道與九軍至鴨渚水之德受王命請 其營詐降實欲觀其虛實遂與神文先來答言</p>	 <p>三國史記卷第四十四 宣稱 列傳第四 乙文又德未詳其世系實沈魏有分數款解 文防剛皇中煬帝下詔征高句麗於是左胡奇 大將軍宇文述出扶餘道右胡衛大將軍于仲 文出樂浪道與九軍至鴨渚水之德受王命請 其營詐降實欲觀其虛實遂與神文先來答言</p>
제 46 권 제 1 장	 <p>三國史記卷第四十六 宣稱 列傳第六 發者中原之沙梁人也父世請於厥其母夢見 人有角而妊身及生頭後有高骨昔謂以兒就 當時所謂賢者問曰此兒頭骨如此何也答曰 吾聞之伏羲虎形女媧蛇身神聖之靈胎胎胎 口則聖賢同類而其相亦有不凡者又觀兒首</p>	 <p>三國史記卷第四十六 宣稱 列傳第六 發者中原之沙梁人也父世請於厥其母夢見 人有角而妊身及生頭後有高骨昔謂以兒就 當時所謂賢者問曰此兒頭骨如此何也答曰 吾聞之伏羲虎形女媧蛇身神聖之靈胎胎胎 口則聖賢同類而其相亦有不凡者又觀兒首</p>
제 47 권 제 10 장	 <p>行義然後棄用之遂取義親男子稚甥之名元 即以奉之徒聚雲集或相屠以道義或相悅以 歌樂遊嬉山水無遠不至因此知其邪正擇而 處之於朝故大問曰賢佐忠臣從此而芳良將 勇卒由是而生者此也三代花即無慮二百餘 人而芳名義軍具如傳記若散傳者不跡徒也 能致命於王事可謂不辱其名者也 裂起史失族姓文正元年事身帝遣鄭克之 討高句麗圍平壤城令資道與劉德敬傳言</p>	 <p>行義然後棄用之遂取義親男子稚甥之名元 即以奉之徒聚雲集或相屠以道義或相悅以 歌樂遊嬉山水無遠不至因此知其邪正擇而 處之於朝故大問曰賢佐忠臣從此而芳良將 勇卒由是而生者此也三代花即無慮二百餘 人而芳名義軍具如傳記若散傳者不跡徒也 能致命於王事可謂不辱其名者也 裂起史失族姓文正元年事身帝遣鄭克之 討高句麗圍平壤城令資道與劉德敬傳言</p>

<그림 14> 제 44 권 제 1 장, 제 46 권 제 1 장, 제 47 권 제 10 장

		中宗本	
제 15 권	제 5 장	<p>如遂成有異心稱疾不仕 八十六年春三月遂成親督營陽七日不歸戲 樂無度秋七月又獵董立五日乃及其弟伯固 諫曰禍福無門惟人所召今予以王弟之親為 百寮之首位已極矣功亦或矣且以恩義存心 禮讓况已上同王德下得民心然後當責下難 於身而禍亂不作矣全不出於此而貪幸必憂 禍為之下危之者曰凡人之情雖不欲當其而 敬樂者或而得之者為無一可令吾居可樂之 勢而不能辭志將蓋用哉遂不從 九十年秋九月九都地震至夜多一豹獨斷虎 尾聲而聞其音或曰虎者百獸之長豹者同 類而小者也意者王之族類殆有謀絕大王之 後者乎王不悅謂右輔高植軍曰我昨夢有所 見古者之言如此為之奈何答曰作不善則古 變為凶作善則災及為福今大王意圖如未定 尺知子雖有小異庸何傷乎 九十四年秋七月遂成獵於雋山之下謂左右</p>	<p>曰大王老而不死吾聞即將棄安不可待也惟 願左右為我計之左右皆曰殺從命矣於是 人獨逃日向王于有不持之言而左右不能直 諫皆曰殺從命者可謂極且彼其善欲直言未 知尊者如何遂成曰子能直言難若也何疑之 有其人對曰今大王之賢名聞外無異心子雖有 功率獲罪下殺之之人譴廢明上此何異將以軍 謀變為劫會而倒見乎雖復殺人猶知其不 可也若王子欲圖為廢孝順事上則大王深知</p>
제 15 권	제 6 장	<p>王子之善必有損讓之心不然則禍將及也遂 成不悅左右妬其直讓於遂成曰王子以大王 爭老恐國祚之危欲為後圖此人善如此我爭 推恐禍及以致是也且殺以成口遂成從之秋 八月王遣將覽從遂成而安年驛殺常乃不獲得 樂浪大守梁子冬十月右輔高植章言於王曰 遂成將殺請先誅之王曰吾既先矣遂成有功 於國吾將擇世子無煩慮植章曰遂成之為人 也忍而不仁今日受大王之禪則則且害大王</p>	<p>種也王善冬十二月無事 八年夏六月雨雪冬十二月雷地震晦等皆月 十三年春二月星孛于北斗夏五月甲戌晦日 有食之 二十年春正月晦日有食之三月大相大王薨 於別宮年百十九歲冬十月稼那已文明臨於 夫因民不忍弑王薨為世大王 三國史記卷第十五</p>
제 15 권	제 9 장	(Blank area with diagonal line)	

<그림 15> 제15권 제5, 6, 9장

中宗本	
<p>目 錄 제 2 장</p>	
<p>目 錄 제 9 장</p>	
<p>目 錄 제 10 장</p>	

<그림 17> 목록 제2, 9, 10장